

제 二 장 닐 곱 교 회

서 론

무시록에는 예수초림으로부터 그의 보좌가 세상에 건설될때까지의 모든사건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이 무시록의 예언은 대개가 닐곱부분으로 나누었으니 곧 닐곱교회, 닐곱인, 닐곱라발, 닐곱재앙등이다. 그리고 무시록전체에 대하여서도 닐곱부분으로 나눌수가 있으니 이것을 닐곱가지 무시라 할수잇는바이다. 처음 네가지 무시는 곧 시기에 관한 무시이니 「반드시 속히 이룰일」의 각 방면을 드러내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각기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것과 가트니 그가 처음에 보이는 한편쪽을 「닐곱교회」라 닐 갖고 그다음에 보이는 다른쪽을 「닐곱인」이라 닐 갖고 그다음 셋째쪽을 「닐곱라발」이라 한다. 그리고 넷째쪽을 보일때에는 이상한 세가지 증성을 드러내었다. 이리하여 진리의 사각기둥의 각면을 온전히 드러내어 그 기둥의 전체를 알게 하였다. 그런후에는 닐곱무시의 마지막 세가지 무시를 보여주셨는데 이는 말세에 이룰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환란가운데 잇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항상 교회를 보호하시고 공회히역이시느바 그가 충성된 종 『요한』으로 말미암아 닐곱 편지를 교회에 부치셨다. 이는 무한한 생명을 구하는자들에게 하느님로부터 특별한 힘을 주시기

위함이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성신이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잇는자는 드를지어 다」 하고 니골벤이나 거듭 말씀한것만 보아도 그 기별이 얼마나 중대한것임을 알수잇는 것이다. 진실로 이 기별은 교회안이나 교회밖에 잇는 모든 사람에게 부치는 기별이니 곳 하나 남새서 각 사람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라는 긴절한 청장이다.

특시록二장과 三장에는 니골교회에 부치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었다. 우리가 그 각 편지를 상고하여 보면 그 내용이 당시 소아세아에 잇든 각 교회에게 적절한 칭찬과 책망과 경고가 되는것을 발견할것이다. 그러나 이 편지를 한것 그 당시의 니골교회에

개만 부친것이라고 하면 그 참정신을 몰가한 큰 오류(誤謬)라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니골교회를 어찌케 해석할가? 니골교회는 니골시대를 의미한것이

니 곳 초대교회시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마지막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긴기간에 그리스도교회안에 잇을 신령적상태를 석라 니골으로 나는 니골시대이다. 그럼으로 이 니골편지는 아세아에 잇는 니골교회에게 부친 편지인 동시에 기원 一세기로부터 마지막시대에 이르는 니골시대의 그리스도교회에게도 부친 편지인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에베소』교회 (사도시대—기원三一—一〇〇년)

「『에베소』교회의 사자에게 이말을 써서 부치라 이르대 오른손에 니골별을 잡고 니골 금촉대사이에 다니시는이가 가르사대 내가 너의 일과 수고와 너의 참는것을

알고 또 약한 사람을 용납지아니한것과 스스로 사도라하되 아난자를 시험하여 그 거 짓된것을 내가 나랏낸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전되고 게으르지아니한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것이 잇으니 너의 처음사랑을 버렸나니라 그 런고로 어대서 셔러진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일을 행하라 내가 만일 그리하지아니하면 내가 네게 립하여 네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올흔 것이 잇으니 내가 미워하는 『니골라』 우리의 일을 내가 미워하는도다 성신이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잇는자는 드를지어다 이기는자는 내가 하나님의 락원에 잇는 생명나무의 과실로 저에게 주어 먹게하리라」

이름의 뜻 『에베소』는 일족이 소아세아에 잇는 제일 큰 도시이었나니 그 이름의 뜻은 「제일」 혹은 「부러워할만하다」는 것이다. 과연 이 명칭은 굉장한도시 『에베소』에 적당한 명칭이다. 그러나 이 명칭은 또한 제一세기의 그리스도교회에도 적당한 명칭이라 할것이다. 당시의 교회는 오순절의 성신나리심을 바다 모든 사도들과 신자들이 큰 열심으로 부응을 전할새 그리스도께 바든 순결한 도리를 그대로 전하여 하로에도 여러 천명식 밋는자를 어뵈다. 그리고 특별히 부르심을 바든 사도 『바울』은 부응을 외방에 전하여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교회의 튼튼한 기초를 세우게 되었는데 당시교회가 그러듯 열심잇고 순결하였으니 『에베소』란 그 이름과 가리 참으로 부러워할만한 교회가 된것이다. 이 교회시대는 오순절에 성신 나리심을 바든 기원三一년으로부터 사도중 가장 나중까지 살아잇은 『요한』의 죽은새 곳 기

원 〇〇년경까지이다.

창천 〓 열심있고 순결하고 부러워할만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기를 「나의 일과 수고와 나의 참는 것을 안다」 하였다. 당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연합하여 유무를 통용하고 피차 위로하였으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참고 노력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안다 하였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파 스스로 사도라 하되 아닌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나타낸 것파 또 내가 참고 내 이들을 위하여 견대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였다. 당시 교회가 매우 잘 발전되고 또는 아조 원만한 것으로 오이리 순조롭지는 못하였나니 교회안에 양의 옷을 입고 임회의 마음을 가진 거짓지도자들이 이리나 세상의 적은 화문으로 순결한 복음의 도리를 어지럽게 하려 하였으며 또 바그로는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 황제 『니로』(Nero)와 『디미트리안』(Domitian)의 박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모든 핍박을 견디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되게 아니하였으며 항상 부끄럽지 않게 활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

그런즉 이와가리 순결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날굽벌을 잡고 날굽금축대 사이에 다니시니」로 나타내신 것은 가장 합당한 일이라 하겠다. 그는 과연 『에베소』 교회 시대동안에 교회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로 왕성하고 하나님의 도리는 온세상에 전파된 것이다. 책망 〓 그러나 이 교회에 오이리 책망할 것 하나가 있었으니 날렸으며 「나의 처음사

랑을 바렸나니라」 하였다. 사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 죽은후로 교회는 처음 열심과 처음 사랑을 일코 경건한 능이 차차 감하여졌다. 사도들로 말하면 직접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항상 그를 따라 다니었으나 그후사람들은 다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러라고 저희가 처음 사랑을 바린 것에 대하여 용서를 바들수는 없는 것이니 이일로하여 책망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런즉 오늘날의 우리도 날마다 직접 예수를 대면하는도시 그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며 열렬하여야 할 것이다.

권면 〓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권면하시기를 「그리고로 어대서 썩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일을 행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림하여 네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였다. 과연 『에베소』 교회는 「처음사랑」이 필요하였다. 처음에 행하던 일을 잊지 계속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도라가 처음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희에게 있는 축대 곳 비춘 소멸되고 말 것이었다. 사랑과 비춘 서로 썩날수 없는 것이니 사랑이 있을 때에 비춘 발하고 사랑이 없스면 비춘 썩질 것이다. 하나님은 곳 사랑이시오 비치지니 하나님은 함재하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비치임은 교회는 세상에 있어서 아모 소용도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에게 또 한가지 귀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예수의 도리를 진실히 지키는 정당한 길에서 썩나는 무리 『니콜라』당을 미워한 그 사실이다. 「율법의 귀미」는 발서 초대교회로부터 생기기 시작하였나니 저 이단 『니콜라』의 무리는 음행과 우상경배를 금치 아니하고 성경의 교훈을 중대히 역하는 대신에 정욕을 썩나아가기를 썩

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러한 여러가지 유희를 물리치고 능히 대적한 일은 실로 가치있는 일이었다.

허락——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에 허락을 말씀하시기전에 「성신이 여러교회에게 하시 는 말씀을 귀잇는자는 드를지어다」하는 경고를 못저하셨는바 이 「귀잇는자는 드르라」는 엄절한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실수 잇는말씀으로 복음서 가운데 여덟번 묵시록 에 여덟번이 기록되어 잇다. 이 말씀은 얼마나 그 허락에 대하여 확실함을 보증하는 말씀이 되는가? 그는 이르렀 곳전한 보증을 두신후 「이기는자는 내가 하나님외 락원 에 잇는 생명나무의 과실로 저를 주어 먹게하리라」하셨다. 이 허락은 그가 얼마전 세 상에 계실때에 하신 허락을 다시 거듭 말씀하시는것이니 니르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 를 위하여 잇을곳을 예비하리라」하셨다.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잇어서는 예수와 함께 하 나님의 락원에 잇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영원히 사는것보다 더 기본일은 업스 며 더 갈망하는바는 업섯을것이다.

『서머나』교회 (다신교』로마』의 핍박——기원 100—133년)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이말을 써서 부치라 니르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처 음과 나중이 되신이 가르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 요하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자의 험방하든 말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 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바들고난을 두려워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

회 가운데서 몇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입어十日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 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성신이 여러교회에게 하시 는 말씀을 귀잇는자는 드를지어다 이기는자는 들재사망의 해를 맞지아니하리라」 이^o들의뜻——『서머나』는 소아시아에 잇는 닐킴도시 가운데서 오늘날까지도 황폐하여지 지아니하고 남아잇는 도시인데 『서머나』라는 의미는 곳 「몰약」이라는것이다. 「몰약」은 훌륭한 향기를 내는 향품으로 어쨌든 큰나무의 진액인데 이것은 치든지 부수는지하면 더 욱 더 조흔 향기를 피는것이다. 그러므로 『서머나』교회는 그 이름부터가 핍박과 곤난 을 당할수록 더욱 온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린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에베 소』교회시대에 잇는 사도들도 핍박을 맞지안은것이 아니라 『서머나』교회시대에는 핍박 이 더욱 보편적이었고 또는 더욱 혹심하고 자조 잇었다. 이 교회시대는 기원 100년 으로 133년 곳 『칸스탄틴』(Constantine)황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신교자유를 준때까지 이니 그동안에 다신교』로마』의 세력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하였다. 이시대의 그리스도교를 묵시가운데 『서머나』교회로 대표한것이다.

칭찬——그리스도께서 『서머나』교회를 칭찬하실때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처음과 나

중이 되신이」로 나타내셨다. 그 핍박받고 순교당한 이시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 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자」로 나타내심은 가장 적당할일이니 그가 저들에게 니르시기를 「내가 또한 순도자의 죽음을 당하였다가 이제 다시 살아 세세에 잇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잡았노라」하시는데가 잇다. 이말씀은 그들에게 더할수업는 위로가 되는것이니 그들

이 이 말슴으로 다시 산물을 화신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슴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교 순의 인도 스리그의 내장 구형 원 『마르』

맞는 시험에 대하여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을 드러내신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칭찬하시기를 「내가 너희
일을 알고...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
가 부요하니라」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젠지 및
는 자의 형편을 잘 아시고 보호하신다. 세상은 밋는
자를 볼 때에 궁핍한 줄로 알지 마는 예수께서는 독실
한 신자의 바들 하를 나라의 유업을 생각하시고 「실
상은 내가 부요하다」고 하신 것이다.

『서머나』 교회 시대에는 한계금사람이 잇었는데 그들
에 대하여 기록되기를 「자칭 『유대』 인이라 하나... 실
상은 『유대』 인이 아니오 『사단』 의 회라」 하였다. 그
때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로라 하고 밋는 체한 무리
가 잇었으나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니 교
회를 피롭게 하고 훼방하였다. 그러나 그 충성되지
않은 무리는 핍박을 당할 때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
도리어 순결하지고 밋는 자의 신앙생활은 더욱 경

박으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하고 독실하여졌다. 그리고 순도자들의 피는 심은 종자와 가라서 만흔 사람으로 하여
금 그리스도를 밋게 하였나니 당시의 핍박이 그리스도교를 업시하기는커녕 도리어 듣는
하고 진실하게 만드렸다.

권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에 대하여 특별히 권고하시기를 「내가 장차 바들 고
난을 두려워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밋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입
어十日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하였다. 이 교회는 여러모양으로 오래동안 핍박을 바
닷으나 오이러十日 동안의 환난이 남아잇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말라」는 특별한
권고가 잇은 것이다.十日은 곧 예언상으로十日인바 이十日환난은 최원三〇三년으로三

一三년까지에 잇은 다신교 『로마』 의 마지막으로 행한 가장 큰 핍박을 가리침이다.
허락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대하여 허락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들재사망의 해를 밋
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는 그들이 밋서 첫재사망의 해는 입었는지라도 부활이 업는
들재사망은 결코 당하지 아니할 것을 보증하신 것이다.

『바가모』 교회 (세속화하는 시대— 최원三三—三五三八년)

「『바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 말을 써서 부치라 니르대 좌우에 날선 리한 길을 잡
은이가 가르사대 네가 어대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곧 『사단』 의 위 잇는 대라 네
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쓰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 때에 내 도리를 배반치 아
니 하였도다 저가 너희 가운데 『사단』 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나니라 그러나 오

이러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것이 있으니 네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자가 있
 는지라 그가 일찍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자손 압해 올모를 노하 우상의 제
 물을 먹게하고 또 행은하게 하였나니라 이와가리 『니골라』무리의 교훈을 지키는자
 가 이처럼 내게도 있나니 그런교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림하여 내 입의 김으로 그사람과 싸우리라 성신이 여러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잇는자는 드를지어다 이기는자에게는 내가 감초맛든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
 러인데 그돌우에 새이름을 쓰것이 있나니 오직 맛는자 박게는 알사람이 없나니라
 이름의뜻 『비가모』라는 말의뜻은 「놈다」혹은 「놈히든다」는것이다。『서머나』교회시대
 에는 다신교 『로마』의 세력이 그리스도교회를 멸하려고 가장 잔인한 핍박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 노력이 한갓 헛된노력에 불과하였으매 이 『비가모』교회시대에 이르러서는 『로
 마』제국이 다신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국교를 삼았다。그리하여 얼마전까지도 학대받
 고 천하게 역이여지든 그리스도교가 이제로부터는 갑자기 일반세상의 환영하는바가 되
 고 능힘을 입게 되었다。그러므로 이시대교회를 『비가모』라는 명칭으로 표시한것은 가
 장 적당한 일이다。이 교회시대는 『칸스란틴』이 권세를 어든때로부터 법왕정치가 완전히
 서게된 313년까지이다。

칭찬 『좌우에 날선 리한길을 잡은이』가 칭찬시대 「네가 어대 사는것을 내가 아
 노니 곳 『사단』의 위 잇는대라 내가 내 이름을 곳게 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 『안
 디바』때에 내 도리를 배반치 아니하였도다」하였다。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리

고 세속화하여 나아가는 『비가모』교회시대를 향하여 「좌우에 날선 리한길을 잡은이」로 나
 라나셨다。이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상한것이니 곳 「활발하고 능력이 잇어 령혼과 신
 파 및 근절과 골수를 썰러 죽이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길이다。
 또 이 길은 심판의 길이 될것이니 이 교회시대에 하나님의 룰법을 거역하고 짓밟은
 자에게 엄정한 심판을 행할것을 표상한것이다。그런데 이 『비가모』교회는 『사단』의 위
 잇는 위험한곳에 잇었다。사실 『비가모』라는 곳에는 「사람을 가르치는 배암」이라는 배
 암의 우상을 만드려노코 숭배하였는바 이것은 태초에 『에덴』동산에서 『해와』를 썬이든
 『사단』을 대표하는바이다。그런데 4세기 이후로 『로마』천주교회는 다신교의 풍속을 수
 입하여 우상을 성기고 감동으로 범왕을 삼는동시에 세상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원하시
 는 뜻에서 밀리 썬나 『사단』의 관계를 썬르게 되었으니 『사단』의 위가 이 『비가모』교
 회시대에 이러나게 되었다。그러나 이교회시대동안에 하나님의 참된도리를 곳게 잡고
 배반치 아니한자들이 잇었으니 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대 사
 는것을 내가 아노니 곳 『사단』의 위 잇는대라」하셨다。이는 「내가 바로 『사단』의 보
 좌가 잇는 아조 위험한곳에 사는줄을 내가 안다」하심이다。그리고 또 이러한 칭찬도 하
 셧다。「내가 내 이름을 곳게 잡고 또 내신실한 증인 『안디바』때에 나의 도리를 배
 반치 아니하였도다 저가 너희 가운데 『사단』의 거하는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나니라」
 『사단』의 위 『사단』은 일찍이 중심에 니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여러 별
 우에 내 보좌를 놓고 보이신산에 안고 지극히 높은 구름우에 올라 지극히 높

호신자로 더부러 비동하리라」(사十四〇十三、十四)하였다. 이것은 곧 『사단』의 생각이
오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오이러 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라도 자기의 위를 세워보려고 힘썼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는 법왕권의 시
작과 발전과 그 행동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줄 안다.

二 사도시대 후 일마아니하여 각처에 있는 교회는 피차 도와주며 유지를 이르기 위하
야 서로 연합하였다. 그리고 저들이 자칭하기를 『캐톨릭』(Catholic Church)이라
하였나니 이 『캐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 혹은 전체적이라는 의미임으로 당시에 있어서
단순히 연합교회라는 의미에 불과하였다. 그후로 차차 교회들을 감독하는 지도자들중에
몇사람은 다른 지도자들보다 높을사람으로 인정되고 특별히 『로마』성에 있는 교회의 감독
은 온 교회가운데서 최고권위를 가진 두목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크릴五三三년
에는 『로마』황제 『저스티니안』(Justinian)이 『로마』교회의 감독은 그리스도교회의 퍼
리가 된다는 조칙을 내리었다. 그리하여 『로마』교회의 감독은 그 권위가 더욱더욱 높
아져서 모든 신도들이 그를 예수대신으로 온 교회의 머리로 암모하게 되었으며 그의
말이면 의례히 하나님과 말씀으로 믿고 복종하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의 보좌와 비동
한 한 보좌가 이 세상에 생기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법왕의 위이다. 그럼으로 법왕
은 망자존대(妄自尊大)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최고한지도자이니 종교상에 관하
야는 나의 생각한바를 누구나 다 들을줄로 인정하여야 할것이라 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죄악의 사람』, 『자존하는 자』, 『불법의 기미』 이러한 명칭을 부치었다. (살후二〇)

三—十참고) 또한 『다니엘』은 이에 대하여 특시가운데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한 입이 있어 큰말로 자랑하는 작은물」로 표시된것을 보았다. (단七〇八참고)

『안디바』—법왕은 그러듯 존대하여지고 권세를 어더 자존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신실
한 신자들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예수요 법왕이 아닌것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유일한 신조요 각사람은 랑심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가 있는것을 확
신하였다. 이와가튼 사상은 곧 법왕권을 반대하는 사상이니 이러한 사상을 가진 무리
가 바로 『안디바』이다. 『안디』는 대적하는것이오 『바』는 아버지 곧법왕(Pope)이란
것임으로 합하여 반법왕(反法王)이란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이 『안디바』는 十三절하
단 말씀과 대조하여 볼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경건한 생활을 살기위하여 진리
를 거스리는 법왕권을 반대하다가 마침내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한 순교자의 무리를 가
리칭인것을 확실히 알수있는것이다.

책망—그러나 『베가모』교회에 책망할것이 있었으니 닐렸는데 「오이러 네게 두어가지
책망할것이 있으니 네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자가 있는지라 그가 일즉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자손 압헤 올모를 노하 우상의 제물을 먹게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
나니라 이와가티 『니골라』무리의 교훈을 지키는자가 그처럼 네게도 있나니」하였다. 『발
람』은 옛적 선지자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체 하면서 내심으로는 불의
의 사술 탐하여 이방왕 『발람』으로 결탁하여 『이스라엘』자손을 저주하려 한자이다. (민廿
二〇—廿五〇, 卅一〇十三—十六참고) 마치 이 『발람』과가티 『베가모』교회시대에도 세상 남

군으로 더부러 결탁하여 세상 재물과 세상 영화를 엿기위하여 하나님의 바른길을 바린자가 많았나니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안에는 이교도의 사상과 레식이 수입되게 된 것이다.

이 『비가모』 교회시대에 있어서 옛적 『발람』 왕의 일과 가튼일을 한 사람은 로마황제 『칸스탄틴』이니 그는 기원三二二년에 황제의 위에 오르는 동시에 전장에 신희자유를 선포(宣布)하고 자신부터 예수교를 믿노라고 성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분명히 그가 회개한 사람이 아닌것을 증명하였나니 그는 다못 그리스도교의 세력과 그 후원을 엿기 위하여 예수를 믿노라고 하였을뿐이다. 그가 교회에 입교한후에는 거액의 국고금을 내어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고 또는 교회직원들에게도 후한 봉급을 주게 하였다. 이러한 교회는 국가의 도음을 입어 외관상으로는 매우 발전되었으나 그 실질이 아주 변화하여 신령적으로는 말할수없시 라락하였다. 『칸스탄틴』은 본시 정략적수단으로 그리스도교를 믿는체하고 또는 후원한 사람이므로 그 내심에는 당시의 다신교와 그리스도교를 혼합시키라고 꾀하였다. 그리하여 다신교의 태양숭배일인 일요일을 그리스도교의 주일로 삼기위하여 한 법령을 내렸으니 이것이 기원三二二년에 반포된 『일요일』 후 법령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교회가 어찌케 락락하고 세속화하였든지 이 법령이 하나님 의 넷재계명에 관계되는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그러케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다만 『칸스탄틴』 황제의 지령이거니 하였을찌름이다. 그리고 그후에 『로마』 법왕은 하나님의 십계명중에서 둘째와 넷재계명을 변경하여 일요일로 하나님의 참안식일을 대신하게

만드렸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안식일을 써나서 태양신을 예배하는날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는 다 『사단』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된일이다.

우리는 일요일의 역사를 연구하는 동시에 태양신에 대하여도 잠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태양신은 곳 다신교도들의 성기는 가장 으뜸되는 신인바 구약에 이신을 『바알』이라 하였고 신약에는 귀왕 『바알세불』이라고 일컫는다. 이신은 아주 큰신으로 모든 다른신들보다 높존지위에 있어 빛과 열과 행복과 그의 모든 조흔것을 공급해주는 근원되는신으로 숭배되었다. 그림으로 태양신을 성기는것은 바로 마귀왕 『사단』을 성기는것이 되나 태양신 숭배일인 일요일을 지키는것도 곳 『사단』을 예배하는것이 되고만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미워하나니 이는 다름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고 그의 정부의 터가 되는줄을 잘 아는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이 넷재계명을 미워하는것은 이계명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신이시오 태양신이 최고한신이 아님을 증거하는 때문이다. 넷재계명에 가르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날로 지키라」 하시고 「옛세 동안에 여호와—하늘과 새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여호와—안식일을 거룩한날로 삼고 복을 주셨나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은 옛적부터 안식일진리를 어지럽게 하기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거짓안식일을 세워 사람들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썩나 자기의 지배하에 있게 하였다.

우에 기록한바와 가리 『비가모』 교회시대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자가 있어 정처

적권세와 연합하여 세상재물과 세상영화를 탐하였고 또 『니골라』 무리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어 다신교의 사상과 의식을 수입하여 교회로 하여금 이상을 성기고 행음하게 하였다.

권고〓〓「그런고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립하여 내입의 김으로 그 사람과 싸우리라」 그리스도께서 『발람』의 교훈을 좇고 『니골라』 무리의 교훈을 좇는 『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경고를 보내었다. 그리고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속히 립하여 그입의 김으로 그 사람과 싸우리라 하였다. 그 입의 김은 곧 좌우에 날선리 한길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길은 진리를 거스리고 세상을 좇는 자들에게 가장 능력이 있는 무리가 된다. 우리는 이 다음교회를 연구할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어찌케 능력이 있게 사용하신것을 연구하게 될것이다.

허락〓〓「이기는자에게는 내가 감초맛은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러인데 그 돌우에 새 이름을 쓴것이 있나니 오직 빛는자 박게는 알사람이 없나니라」 이 교회의 이기는자에게는 감초맛은 『만나』와 새 이름을 쓴 흰돌을 주기로 약속되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 시내』 광야에서 먹든 하늘양식이니 주께서 재림하실때에 이기는자에게 주실 상급이다. 그런데 이 『만나』로 말하면 예수를 표상하는것이니 예수께서 과연 생명의 식이 되시는것이다. 그런고로 이기는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의 신령한 양식을 얻을것이니 이것이 진리에 주린 『비가모』 교회에게 얼마나 적당한 허락인가? 또한 새 이름을 쓴 흰돌을 주시기로 약속되었는바 옛적 풍속에 대리석이나 상아로 만든

패가 잇었는데 이것이 잇는 사람은 무슨 연구장이나 회장가운데 자유로 출입할수잇는 특권을 가졌섯고 또 무슨경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글자를 삼인돌을 주었는데 그것이 승리자의 표이엇섯다. 그와가리 그리스도께서 이기는자에게 특별한표를 주실것인바 옛날 『야곱』이 자기 잘못을 뉘웃고 마음의 변화를 바다 이기는자가 되었을때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것처럼 이기는자가 그리스도께 각각 새로운 이름을 얻을것이니 닐렸으대 「여호와의 입으로 닐카를 새이름을 내가 어드리라」 (사六十二〇二) 하였다.

『두아드라』교회 (법왕권시대—기원五三八—一七九八년)

「『두아드라』교회의 사자에게 이말을 써서 부치라 니르대 그 눈이 불췌갓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가튼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사대 내가 너의 일과 사람과 미듬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일이 처음한것보다 만토다 그러나 오이러 네게 책망할일이 잇노라 내가 그너인 『이세벨』을 용납하였나니 저가 자칭 선지자라 하고 내 종들을 가르쳐 싸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는지라 또 내가 재를 주어 회개하게 하되 저가 그 음행을 회개코저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저를 침상에 던질터이오 또 저로 더부러 간음하는자도 만일 그 일을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여라 교회가 나는 사람의 마음과 속뜻을 살피는자인줄 알지니 내가 너희 각사람의

행한일대로 갑하주리라 그남아는 『두아디라』에 있어 그 교훈을 밋지 아니하고 저희의 나쁜바 『사단』의 길혼것을 아지못하는 너희게 말하노니 다른짐으로 지을것이 업노라 다만 네게 있는것을 내가 을새까지 곳게 잡으라 이기는자와 나종까지 내일을 지키는자에게 만כות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것과 가리 하리니 나도 아바지새 바는것이 그리한지라 내가 또 새벌벌을 주리도다 성신이 여러 교회에게 하시는 말승을 귀잇는자는 드를지 어다」

이름의뜻 『두아디라』라는 이름은 『헬라』말에 「깨트린다」는것과 「분향 혹은 제물을 드리는 레식」이라는 두말로 되었는데 이를 련합하여 생각하면 「수고의 향내」 또는 「고난의 회생」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말의 뜻은 암혹시대에 잇는 참교회의 형편을 적절히 표시한것이라 할수있다。

이 『두아디라』 교회시대는 렽사상 중세기의 암혹시대를 대부분 포함하였으니 이시대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치 거의 썩지다시피 되었었다。 그 기간은 『로마』 교회가 「사단의위」를 어는 기원五三八년으로부터 一七九八년까지 一천二백六十年동안이니 곳 다른여섯교회시대를 총합한것보다도 더 긴기간이다。

칭찬 『눈이 불췌갓고 그발이 빛난 주석과 가른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사대 내가 나의 일과 사랑과 미듬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종일이 처음한것보다 만도다』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적당함으로 나타내셨으니 눈

이 불췌갓고 발이 빛난주석과 가른이로 나타내셨다。 눈이 불췌갓트시매 아모리한 암혹이라도 능히 두려보실수 있나니 아모든지 그의 눈에서 그의 신실한 백성을 감출수가 업는것이다。 그는 그 불췌갓든 광명한 눈으로 자기의 백성이 어셔한 고통과 환난가운데 빠져잇든지 항상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것이다。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가르시매 이는 그가 환난을 당하고 련단함을 바드셨은즉 자기 백성이 아모리 흑심한 환난과 핍박을 바들지라도 그들로 더부러 동행하실 표가 되는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대 「내가 너의 일과 사랑과 미듬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종일이 처음한것보다 만도다」 하였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참 신도들은 오래동안에 환난을 당하였으나 피차 사랑으로 련락하고 미듬을 지키고 주를 위하야 봉사하고 죽기까지 인내하였으니 진실로 칭찬을 바들만하였다。 그들의 당한 환난은 기원五三八년으로 一七九八년까지 이르는 一천二백六十年동안의 긴기간인데 특별히 十六세기에 잇은 종교개혁당시에는 그들의 충성과 열심이 더욱 나타났다。 그러므로 나종일이 처음일보다 만다는 칭찬을 뜻게 된것이다。

책망 『그러나 오이러 네게 책망할일이 잇노라 내가 그 너인 『이세벨』을 용납하였나니 저가 자칭 선지자라 하고 내종들을 가르쳐 썩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는지라』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것에 대하여 책망을 바닷다。 그러면 『이세벨』은 어셔한 사람인가? 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 『이스라엘』왕 『아합』의 안해가 되어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물법을 거스리고 『바알』신

을 성기개한 음란한 녀자이었다. 그리고 그는 『바알』 선지자들을 자국의 상에서 먹이고
 하나님을 선지자들은 모다 잡아 죽이였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겨서 태양신 『바알』을 성기개 하였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름이 이 『두아드라』 교회
 에 부치는 기별가운데 쓰인것은 『두아드라』 교회시대의 『로마』 교회의 행동이 마치 『이세
 벨』의 행동과 흡사하였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이가튼 사실을 묵시로 볼때에 「저은살」이 진리를 썩에 던지는것을 보았
 다. 이일은 우리가 밭서 연구한 『바가모』 교회시대로부터 시작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실
 현되었는데 『두아드라』 교회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일이 더욱 보편화하여졌다. 하나님의
 법은 우상숭배를 절대로 불허하지마는 『로마』 교회는 를법을 어기고 이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가르치기를 법왕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인
 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셨다고 하였다. 죄사함을 바드라면 그리스도 대신에 법왕
 에게 죄를 자복하여야 한다고하며 법왕은 불순종자를 징치할 권세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죄인은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그릇된 도리를 가르쳤으며 여러 백년동
 안 일반의 성경가지는것을 금지하여 가정에서 성경을 읽거나 두어두거나 하지도 못하
 게 하였다. 그리하여 법왕의하는 그일이 얼마나 그릇된 일임을 일방이 깨다를수 없게
 하였다. 진실로 이 모든일은 옛날 『이세벨』의 행동과 가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였다.

경고 〓 〓 또 내가 때를 주어 회개하게 하되 저가 그 음행을 회개코져 아니하도다 불
 지이다 내가 저를 침상에 던질리이오 또 저로 더부러 간음하는자도 만일 그 일을 회
 개치아니하면 큰 환난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 교회가 나
 는 사람의 마음과 속뜻을 살피시는자인줄 알
 지니 내가 너희 각사람의 행한일대로 갹하주
 리라」이 경고는 『로마』 교와 『로마』 교를 썩르
 는 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이니 옛날 『이세
 벨』에게 대한 『엘니아』의 경고와 비교할만한
 경고이다. 과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사람
 이라도 멸망치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로마』 천주교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여러 모
 양으로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다. 혹은 천주교
 회 그 자체안에서 천주교회의 부정당한 도리
 에 대한 반대운동이 이어나게 하시고 혹은 천
 주교회밖에서 그 올치안은 도리에 대하여 부
 르짖게 하셨다. 그러나 저희는 이를 조곰도
 라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개혁운동자들을 핍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고



함해인울경성로으용취야하명발울습해인 이『역덴부』

박하였스며 저이의 비행과 죄를 회개치

종의 「칭상」에 던지사 쓰린맛을 보게하시교 또한 큰환란가운데 던지사 그 자녀들을 죽이셨다. 암흑시대동안에는 특별히 종교가 정치에 관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전쟁과 소란한일이 만히 이르렀나니 여러세기동안을 계속하여 수백만 생명이 종교상쟁점으로 말미암아 무참한 희생을 당하였다.

二 권고〓 이 시대동안에 잇을 참된 신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남아는 『두아디라』에 잇어 그 교회를 밋지아니하고 저희의 나쁜바 『사단』의 길흔것을 아지못한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동안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진리나 당신의 백성을 어찌하지못하는것이다. 옛적부터 언젠지 진실한사람 몇명식은 잇어 왔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잇었다. 그들은 법왕권을 반대하여 이데리와 볼란서의 산중에 피하여 잇었나니 그들을 청교도(淸教徒)라 닐카렸다. 그런데 그 진실한 남아 잇는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집으로 지울것이 업노라 다만 내게 잇는것을 내가 올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셨다. 이시대동안에 잇는 진실한 신도들의 질 유일한 짐은 저이에게 잇는것을 굳게 잡는것이였다. 과연 『두아디라』 교회의 성경 가지는것을 엄금하였지만은 청교도들은 자국방언의 성경을 가졌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하였다. 암흑시대를 통하여 오며 청교도의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올 굳게 지키었다. 그리고 저희는 법왕이 지상의 하나님이란것을 부인하고 우상숭배를 거절하였스며 그중에 더리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었다. 저희는 구원의 방법을

리해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뎠다. 또한 저희는 성경을 연구할뿐아니라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진리로 도라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순도자의 죽음을 당한것이였다. 과연 그들의 당한바 비애와 회생으로 말하면 『두아디라』의 참된 신도의 자격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업나니 『두아디라』는 「고난의회생」을 의미하는것이다. 또한 그들에게는 재림에 대한 경고를 주셨나니 「내가 올때까지」네 잇는것을 굳게 잡으라 하셨다. 『두아디라』 교회의 마지막시기에 잇어서 하나님께서 수재림에 대한 첫째 큰징조——해가 어둡고 달이 비출내지안는 징조를 나타내심으로 저이에게 경계하사 그 소망을 더욱 확실케 하시고 그 가진 진리를 더욱 굳게 잡도록 하신것이였다.

허락〓 「이기는자와 나중까지 내 일을 지키는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것과 가리하리니 나도 아바지때바든것이 그러한지라 내가 또 새벽별을 주리로다」 『두아디라』 교회의 현상은 언젠지계속할것이 아니었다. 그 진실한 신도들이 여러나라에서 압제와 능욕을 당하였지만은 그 들은 장차 철장을 가지고 저들을 피하기를 마치 질그릇 부수듯 할것이오 그들이 비록 암흑한 시대에 살았으나 장차 광명한 새벽별과 가리 영원도록 비칠것이였다.